

광주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등 차질

민간수거업체 지난 29일 하루 수거 중단

민간시설 정상화 될 때까지 문제 지속

광주지역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시설의 화재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기를 수거하는 일부 민간업체가 지난 29일 하루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

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사료화하는 민간시설 3곳 중 1곳이 지난 6월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뒤 다른 곳의 반입량 과부하로 수거까지 중단된 것이다. 특히 여름철 들어 주택에서 하루 발

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부하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도 민간시설 화재로 일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됐다. 민간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담하는 광주시환경공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2곳 중 1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이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민간시설이 8월12일

게 정상화 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물량까지 증가하면서 수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수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타 지역으로 가져가 처리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학부모 98% “에듀택시 만족도 높다”

전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에듀택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에듀택시에 대해 지난 1~19일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8%(매우 만족 65.9%, 만족 31.9%)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에듀택시는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학생중심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전남의 초·중학교 807곳(분교장 포함)이 사라지면서 읍·면지역 초·중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에듀택시 79대를 운행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길리고 통학거리가 2km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해왔다.

에듀택시 이용 학생들은 통학거리와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에듀택시를 전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대상 학생은 7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과 지원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과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다.

나주SRF 거버넌스 “난방공사 합의안 수용...단계별 협의 촉구”

나주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한국지력난방공사에 합의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난방공사가 지난 5일 열린 자사 긴급 이사회에서 100%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전환에 따른 ‘손실보존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긴급이사회에서 손실보존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문을 작성할 경우 회사손실, 업무상 배임문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문제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의견을 보류하고 지난 17일 재협의 입장을 밝혔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이만원(광주대 교수), 박병호(전남도 행정부지사) 공동대표는 30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거버넌스 위원회는 대화와 토론·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기구이므로 협의했던 내용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방공사 측이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환경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에 우선 합의하고,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료사용 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비용 부담 주체는 정부를 주축으로 별도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1월부터 11차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시원가동+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를 골자로 한 최종 합의문 작성을 눈앞에 두고 큰 벽으로 등장한 난방공사의 손실비용 보존 문제 제기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은 아니다.

나주SRF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논’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 당사자 대다수가 눈앞의 최대 현안인 ‘시원가동+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실시부터 먼저 논의한 후 손실비용 문제 해결은 단계별로 협의해 나가자는 요청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 사항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거버넌스에서 반대파 측이 ‘시원가동+주민수용성조사 실시’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공사 측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8월7일 오후 1시30분에 12차 회의를 열고 거버넌스 각 주체들이 해법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 주체들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면 거버넌스가 결국 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면허지 불법 임대 해삼 채취 선장 등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해삼 등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선장과 해녀 등 일당 4명과 이를 묵인한 어촌계장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의 마을 면허지를 불법임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해삼 2.7t(시가 3300만원)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이번 해경의 단속에는 3.5급 K호 선장 A(47) 씨와 B(55) 씨 등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매대한 C씨,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등 5명이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재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해 상습적으로 불법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속도로 걸던 30대 외국인 구조

경찰이 고창담양고속도로를 횡단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트래픽브레이크’ 기법을 사용해 구조했다.

30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 5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35분께 장성군 서삼면 고창담양고속도로 문수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사람이 걸여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하행선을 넘니듬머위험하게 걸여다닌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는 남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도착 5분전부터 ‘트래픽브레이크’ 기법을 활용했다.

트래픽브레이크는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됐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기 위해 순찰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후속차량의 속도를 최대 30km 이하로 낮추는 운전방법이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 30여분만이 오후 9시께 남성을 구조했다.

조사결과 남성은 전북 고창의 한 공장에 취업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A(33)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을 마친 뒤 택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내렸으며 길을 몰라 헤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해남서 화물·승용차 충돌...70대 부부 숨져

30일 오전 9시59분께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한 마을 입구 주변 사거리에서 이모(76)씨가 몰던 승용차와 김모(65)씨의 14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와 이씨의 아내(73)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두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스배관 타고 당구장 36곳 턴 3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가스배관을 타고 당구장만 턴 혐의(아각건조물침입 절도)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4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건물 비상 계단을 타고 올라 당구장에 침입, 55만원의 휴지는 등 이달 23일까지 당구장 36곳에서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새벽시간대 긴급피난용 비상탈출 계단이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당구장 창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목격자와 재회 도촬범, 이들 만에 잡혀

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도주했던 50대가 이들 뒤 당시 목격자가 탄 버스를 탔다가 승객 신고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A(5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